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우스터 레드삭스 코리안 나이트 최근 케이팝처럼 펑펑 터졌다



지난 22일 우스터 폴라파크에서 개최된 코리안 헤리티지 나이트에서 케이팝 커버댄스 팀인 허시(Hush)가 경기 후 홈 베이스 위에서 댄스를 선보이고 있다

올해 3회째 코리안헤리티지 나이트 케이팝 인기 확인
우스터 시는 태극기 게양, 조시 파티 시장 선언문 낭독

(뉴튼=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우스터 레드삭스의 코리안 헤리티지 나이트가 피날레를 장식한 불꽃놀이처럼 화려하게 우삭스 폴라파크(Polar Park)를 꽉 채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린 우스터 레드삭스의 코리안 헤리티지 나이트는 더욱 알차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팬들에게 한국 문화와 케이팝을 선보였다. 오후 6시에는 폴라파크 메인 게이트 앞에서 케이팝 커버댄스 그룹 '엄브라'가 무대를 열며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경기장 안에서는 태권도 시범이 펼쳐졌다. 경기 시작 전 애국가와 미국 국가를 소프라노 양나래 씨가 불러 큰 환호를 받았다. 이날 식전 행사에서는 보스톤 한인 입양아가 소개됐고, 보스톤 총영사관 백민지 영사가 시

〈전체 기사 읽기〉

구에 나섰다.

경기장에는 평소보다 많은 한인들과 케이팝 팬들이 몰려 전석이 일찌감치 매진됐으며, 입석표만 판매됐다. 우삭스 최지원 데이터분석 및 그룹세일즈 매니저는 "보통 금·토·일 경기는 매진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한인들을 비롯한 새로운 팬들이 많이 찾았다"고 설명했다.

경기 종료 후에는 케이팝 커버댄스 팀 '허시(Hush)'가 홈 베이스 위에서 공연을 펼치며 관중의 환호를 받았다. 최근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케이팝 데몬헌터스(Kpop Demon Hunters)' 영화와 음원 열풍도 맞물려 케이팝 무대는 더욱 큰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 순서는 ▶9면으로 계속

마이클리 모기지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Your Answer to the Solution

내 집 마련·투자·재융자,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금융 솔루션!
저금리 융자·재융자, 내 집 마련과 투자까지!
믿을 수 있는 모기지 해결사!
모기지 제일 잘 하는 마이크!

Michael Lee, VP of Mortgage Lending, NMLS 1464242
978.314.8818 mtgwithmike@gmail.com
300 Washington St, Suite 315, Newton, MA 02458
GMCC, NMLS 254895

Disclaimer: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is an Equal Housing Lender. We do not discriminate based on race, color, religion, national origin, sex, disability or familial status. Licensed Mortgage Broker. HUD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All loans subject to underwriting approval.

매사추세츠, 9월부터 <정크 수수료> 법적 보호 시행

자동 갹신 청구도 고지, 취소 의무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소비자들은 곧 호텔, 식당, 렌터카, 자동차 판매, 콘서트 티켓, 일반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과되는 정크 수수료(junk fees)와 자동 갹신 결제에 대해 강력한 새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다만 항공사는 연방 규제 대상이어서 예외다.

새 규정은 9월 2일부터 발효된다. 앞으로 사업자는 헬스클럽, 스트리밍 서비스, 출판물 구독 등과 같은 계약을 자동 갹신할 경우 소비자에게 미리 이를 고지하고, 취소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안드레아 캄벨 매사추세츠주 검찰총장은 약 2년만에 이 규정을 마련했으며, 공정회와 기업 준비 기간을 위한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쳤다. 이번 규정은 수십 년 전 제정된 주 소비자보호법을 근거로 하며,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영업 행위를 금 ▶7면으로 계속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전통 관악기 연주자가민 초청 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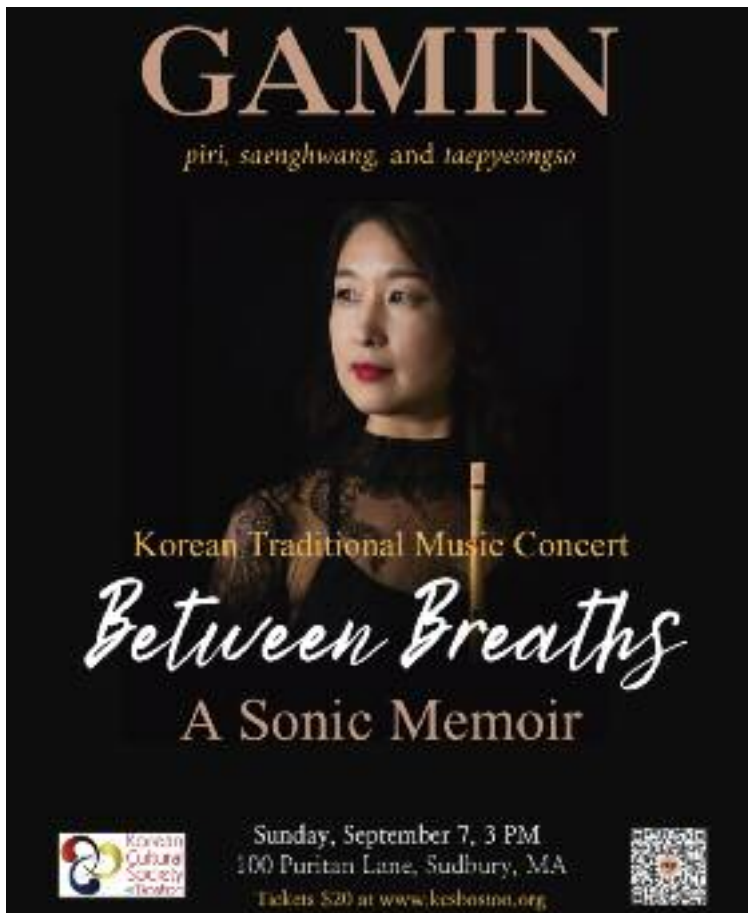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미예술협회는 오는 9월 7일(일)에 〈한국 전통음악 시리즈〉의 하나로 가민(Gamin) 초청 연주회를 개최한다. 작년 11월과 지난 4월에 이어 계속되는 이 시리즈는 하우스 콘서트로 일요일 오후에 진행되는 데, 아늑한 분위기에서 수준 높은 한국 전통 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전통 관악기인 피리, 생황, 태평소 연주자인 가민은 중요무형문화재 제46호인 〈피리 정악 및 대취타〉의 이수자이며,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국립국악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그 후 그는 뉴욕으로 기반을 옮겨서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을 넘나드는 활발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2021년에는 제롬 힐 재단과 하워드 재단으로부터 펠로우십을 받았고, 2022년부터는 UCLA의 민족음악학과에서 한국 음악 프로그램의 디렉터로 가르치고 있다.

Between Breaths 라는 제목이 붙은 이번 음악회에서 그는 소리, 기억, 정체성이란 개념을 엮은 멀티미디어 공연을 선보인다. 여러 장소와 언어, 문화 속에서 살면서 음악적, 정신



적, 정서적인 리니지(혈통)를 이어 간다는 것의 의미를 고민하며 만든 프로그램이다.

좌석이 한정되어 있고 이웃의 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콘서트이므로 사전 예매가 권장된다.

〈음악회 정보〉

Between Breaths: Sonic Memoir
장소: 100 Puritan Lane, Sudbury, MA

일시: 2025년 9월 7일(일) 오후 3시
입장료: \$20

상세 정보: www.kcsboston.org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산악회 질랜드 마운틴으로 14차 정기 산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산악회가 오는 9월 6일 토요일 뉴햄프셔 화이트필드에 위치한 질랜드 마운틴(Zealand Mountain)으로 14차 정기 산행을 떠난다.

이번 산행은 난이도 5단계 중 3-4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참가자들은 체력과 경험에 따라 세 가지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A조는 질랜드 마운틴 정상(목표로 하는 왕복 11.2마일 코스, B조는 전망이 뛰어난 질클리프(Zealcliff)까지 왕복 8마일, C조는 AMC 산장인 질랜드 폴(Zealand Fall)까지 비교적 가벼운 왕복 4.6마일 코스)로 진행된다.

특히 초입 2마일 구간은 평탄하고 아름다워 뉴햄프셔 산행 초보자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몇 년 전에는 이 구간에서 무스(Moose)를 목격하기도 했다. 산행 전체 소요시간은 약 6-7시간으로 예상된다.

준비물로는 배낭, 등산화, 방풍의, 우의, 장갑, 모자, 스틱, 식수 및 간편 중식이 권장되며, 특히 정상 기온 변화에 대비해 겨울 장

〈전체 기사 읽기〉

갑과 방풍 재킷을 준비해야 한다. 초보자는 B조 또는 C조 참여를 권장하며, 면 티셔츠나 청바지 등은 삼가고 드라이핏(Dry Fit)과 같은 기능성 의류를 착용해야 한다.

산행 당일 집결 시간은 오전 7시 정각, 장소는 93번 뉴햄프셔 출구 2 파크앤라이드에 위치한 보스톤익스프레스버스터미널 Boston Express Bus Terminal이다. 차비는 1인당 20달러다.

산행 신청은 9월 4일(목) 오후 6시에 마감한다. 신청 시 원하는 코스(A·B·C), 차량 제공 가능 여부 등을 밝혀야 하며, 첫 참가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남겨야 한다. 산악회 측은 "신청 후 부득이하게 불참할 경우 반드시 연락해달라" 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산행은 기상 상황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전날 보스톤산악회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는 617-780-9588에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JUNG KWAN JANG

정관장에서 만든 믿을 수 있는 공진단
정관장 "황진단"

Korean Red Ginseng Powder	1,360 mg
Korean Red Ginseng Extract	80 mg
Phellinus Linteus Extract Powder	120 mg
Deer Antler Extract Powder	120 mg
Korean Angelica Extract	120 mg
Cornus Officinalis Powder	120 mg

정관장 황진단은 홍삼을 상위 2%로 선별된 지삼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녹용, 청담귀, 산수유, 상항버섯 등 귀한 부원료를 조합하여 만든 제품으로, 무더운 여름 지치고 무기력한 몸이 활력을 주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MART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 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781-238-0303 전화주문 서비스
별첨된경 고객센터 건너편 위치 \$150 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

ICON DENTAL 아이콘 덴탈

Dedicated to Your Health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통한 성인 및 청소년 치열 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전화 617.957.8133

57 Bedford Stree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oad, Suite A8, Concord, MA 071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수술 및
잇몸질환 전문의



매사추세츠 주택시장 해빙조짐, 거래 증가 매물도 급증

7월 거래 늘면서 단독주택 매물재고 약 20% 늘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매사추세츠 주택시장에서 그동안 얼어붙었던 거래가 다소 살아나며 해빙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마침내 고금리를 현실로 인식하면서 거래량과 매물이 동시에 늘어나고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모습이다.

그레이트보스톤부동산중개인협회(GBAR)가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보스톤권 단독주택 중간가격은 9만7천 달러로 전달인 6월 10만 달러를 넘었던 수준에서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만1천8백 달러에 비해 여전히 5.3% 상승한 수치다.

거래량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

다. 7월 한 달간 매매된 단독주택은 1,256채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늘었다. 신규 매물과 기존의 매물 재고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단독주택 매물 재고는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했고, 콘도 재고는 29%나 늘어났다.

GBAR 회장 마크 트리글리오니는 “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된 주택들은 여전히 빠르게 팔리며, 매도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 고 밝혔다.

이번 매물 증가세는 수년간 고금리 때문에 거래를 미뤘던 집주인들이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다시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음을

〈전체 기사 읽기〉

시사한다. 실제로 2021년 7월 평균 2.86%였던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최근 6.58%까지 올라 주택 이동을 주저하게 만들었으나, 공급 부족 심화가 집값 상승을 압박해왔다.

한편, 부동산 분석기관 워렌 그룹(Warren Group)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전체 단독주택 중간가격은 지난해 6만 달러에서 올해 7월 6만5천 달러로 상승했다. 주 전역에서도 여전히 집값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가격은 단기적으로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역 내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주택가격이 의미 있게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9월 <라이선싱 & 지식재산권(IP)> 웨비나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국지사(KHIDI USA)가 오는 9월 4일 목요일 오후 8시에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상 및 지식재산권 전략을 주제로 한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의 주제는 “글로벌 제약사와 아웃라이선싱 협상 및 한국 기업을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 최적화 전략” 으로, 한국 바이오·제약 기업들의 미국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행사는 크게 두 세션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Building Value in Your Patent Portfolio)이며, 두 번째는 전략적 협력에서의 가치 극대화 (Maximizing Value in

〈전체 기사 읽기〉

Strategic Collaborations)이다.

이번 웨비나에는 정석제이 유 변호사(Foley Hoag LLP)가 모더레이터로 참여하며, 라이선싱 분야에서는 Sarah Cooleybeck과 Sumi Sedor,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David Halstead 변호사가 연사로 나선다.

웨비나는 사전 등록자에 한해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참가자는 아래 링크에서 이메일을 등록하면 개별 접속링크를 받을 수 있다.

▶ 등록 링크 :

https://us06web.zoom.us/join/register/WN_r31aMt2_SNSZktET'sNASiw#/registration
문의: www.khidiusa.org
bostonkorean@hotmail.com



LET'S GET REAL ABOUT GAMBLING

문제성 도박으로 인해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국토부, 유학생 체류 4년 제한 추진...보스톤 파장 예상

미국 고등교육·의료계 반발 속 한인 유학생 사회에도 타격 유학생 사회 변화 불가피, 한인 사회에도 영향 줄 듯 4년 넘게 체류하기 위해서는 다시 신청서 제출해 심사받아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F-1)과 교환방문자(J-1)의 미국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 이번 조치는 1978년 이후 40년 넘게 유지돼 온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으로, 한인 유학생들과 교육 도시인 보스톤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안보부(DHS)는 27일 보도 자료에서, 그간 유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간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기한 체류해 온 제도가 “안보 위협과 세금 낭비를 초래하고 미국 시민들을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DHS 대변인은 “이번 규정은 특정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머무는 기간을 제한해 더 이상 남용이 불가능하게 한다”며 “국토안

보부가 학생 및 교환비자를 관리하는 부담을 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유학생과 교환방문객은 자신이 참여 중인 프로그램 기간 내에서만 체류가 가능하며, 최대 4년을 넘길 수 없다. 체류 연장을 원할 경우 이민국(USCIS)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언론인 역시 최초 240일, 이후 최대 240일 연장만 허용된다.

2020년 첫 시도, 바이든 행정부가 철회했지만 부활

이번 규정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기 말기인 2020년에 한 차례 추진됐으나, 2021년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철회된 바 있다. 당시 미국내 대학과 의료계 단체들은 “학업과 수련 과정이 4년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학위 과정과 의료 인력 양성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

며 강력히 반발했었다.

이번 재추진은 최근 국제학생 유입을 제한하는 일련의 강력 조치에 이은 카운터 펀치에 해당한다.

올해 초에는 수천 명의 F-1 학생들이 연방 법 집행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통보 없이 합법적 체류 신분이 박탈되고 비자가 취소됐다. 또 수주간 비자 인터뷰가 중단되면서 가을 학기 입학 앞둔 학생들 사이에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고등교육 단체들은 벌써 내년도 외국인 유학생 등록이 급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 교육자연합(NAFSA)은 올 가을 학기에만 국제 유학생들의 수는 약 15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학이 많은 보스톤의 경우 유학생의 감소란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각종 자료에 따르면 하버드는 국제학생이 27%, MIT는 학부가 12%, 대학원이 40%에 달한다. 보스톤대학(BU)도 국제학생이 약 29%, 노스이스턴은 전체 학생의 절반 정도가 국제학생이다.

영원한 학생 제도 종식, 납세자의 이득 보장위해 검증 강화

〈전체 기사 읽기〉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경제팀은 “외국인 체류를 무기한 허용 해온 과거 정책이 사실상 ‘영원한 학생’을 양산했다”며 제도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또 “미국 납세자가 이미 칩스 법 등으로 기업을 지원했듯이, 외국인 체류 역시 납세자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정기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편다. 이는 대통령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인 스티븐 마이런(미란, Miran)의 논지다.

반면 대학과 병원들은 교육·연구·의료 현장에서 인력 수급 차질을 우려할 수 있다. 학부·대학원 과정의 상당수가 4년 이상 소요되며, 의사 수련 과정 역시 장기 체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STEM 전공 유학생과 레지던트 과정에 참여하는 의사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한인 유학생 사회에도 직접 타격

이번 규정은 한인 사회에도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매년 4만~5만 명의 유학생을 미국에 보내는 3위 유학생 보유 국가다. 특히 박사과정, 의학 수련, 장기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아 체류 기간 제한은 학업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연장 심사 과정에서 불합격하거나 지연될 경우 학업 중단, 귀국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당장 큰 변화를 없을 것

이번 규정은 최소한 내년 학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여 당장 큰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근 15명의 브라운대 학생들이 국무부의 비자발급 거부로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등 유학생에 적대적인 정책이 지속되는 한 유학생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학생들은 향후 비자 연장 심사 신청을 할 경우를 대비해 미국 내 생활에서 법집행기관에 연루될 수 있는 행동은 삼가고 상당한 주의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기주 변호사는 “4년 후 다른 학위를 하는 경우 신분연장의 번거로움이 생긴다”고 지적하고 “국토부가 유학생에 대한 심사와 감독의 기회를 갖게 되므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으면 문제 일으키지 말고 양전히 공부하라는 메시지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정은 아직 제안(Proposal) 단계로, 향후 6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행정부가 강력히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실제 시행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시행 시점은 내년 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어, 보스톤을 비롯한 주요 대학가 유학생 사회가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editor@bostonkorea.com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주별 자녀 텍스 크레딧, 아동 빈곤율 완화 효과 입증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팬데믹 이후 자녀 텍스 크레딧 (Child Tax Credit)을 도입한 12개 주가 그렇지 않은 주들에 비해 아동 빈곤율 상승을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콜롬비아대학교 빈곤·사회정책센터(CPSP)가 최근 발표한 분석 결과다.

이번 연구는 주별 자녀 텍스 크레딧이 몇 명의 아동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는지를 추정하고, 2021년 말 종료된 연방 차원의 팬데믹 특별 자녀 텍스 크레딧과 비교했다. 연구진은 “연방 지원 축소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가정들에게 주 단위의 프로그램이 일정 부분 완충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미네소타주의 경우 17세 이하 아동 1인당 최대 1,750달러까지 제공하는 크레딧이 1만3천 명의 아동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방 자녀 텍스 크레딧이 유지됐다면 혜택을 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3만1천 명의 절반 가까운 수준이다. 버몬트주의 프로그램도 뚜

렷한 효과를 보였지만,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의 경우 연방 크레딧 대비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매사추세츠는 13세 미만 아동 1인당 최대 440달러를 제공하는 자녀 텍스 크레딧을 운영하고 있으나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부터 시행된 매사추세츠 주 자녀 텍스 크레딧은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팬데믹 당시 직장이 파트타임으로 전환되며 소득이 줄었던 매사추세츠 주민 후흥부(40)는 “2021년 연방 자녀 텍스 크레딧 덕분에 생활이 버틸 수 있었다”며 “주 자녀 텍스 크레딧 역시 물가 상승 속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 차원의 지원은 훨씬 큰 효과를 보였다. 2021년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에 따라 최대 3,600달러까지 완전 환급 가능한 자녀 텍스 크레딧이 도입되자 아동 빈곤율은 사상 최저인 5.2%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2021년 말 종료되면서 아

동 빈곤율은 다시 급등, 2023년에는 13.7%로 치솟았다.

콜롬비아대 CPSP의 추적 지표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미국 아동의 22.5%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는 4년 전 같은 시점 14.7%에서 크게 악화된 수치다.

한편 올해 초 공화당은 새 재정 패키지를 통해 연방 자녀 텍스 크레딧을 1인당 최대 2,200달러로 확대했지만, 완전 환급이 아니어서 저소득층은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주리주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최대 5,000달러까지 월별 현금 지급을 허용하는 추가 확대안을 제안하며 “근로 가정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 CEPR의 줄리 차이 경제학자는 “자녀 텍스 크레딧을 보다 대폭 확대해야 실적이 나 경기 침체에 가계가 겪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매사추세츠 주민 35만 명, 건강보험 리베이트 받는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민 35만 명이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리베이트를 받게 된다.

주 보험 규제 당국은 26일, 총 7,560만 달러 규모의 리베이트가 개인 보험 가입자와 소규모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5개 보험사 상품에서 지급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지급액은 5,160만 달러였다.

리베이트 제도는 보험사가 3년 평균 ‘의료손실비율(Medical Loss Ratio)’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발동된다. 주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개인 및 소규모 그룹 가입자의 보험료 중 최소 88%를 실제 의료 서비스 제공에 사용해야 한다.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그 차액만큼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마이클 칼자우 매사추세츠 보험 커미셔너는 성명을 통해 “이 리베이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가족과 소규모 사업주에게 직접 돌아가는 돈”이라며 “법 집행은 소비자 보호와 함께 보험사

들이 행정 비용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의료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주 당국은 이번 리베이트가 최근 인플레이션을 웃도는 의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일정 부분 위안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연방 정부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 정부가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고 의료 접근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리베이트 액수는 보험사별, 그리고 각 가입자의 보험료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보험사는 매사추세츠 블루크로스·블루실드 HMO 블루, 풀커 커뮤니티 헬스 플랜, 하버드 필그림 헬스케어, 매스 제너럴 브리검 헬스 플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인슈어런스 컴퍼니다. 리베이트는 수표로 직접 지급되거나 향후 보험료 납부 시 크레딧으로 반영될 수 있다.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중은치과, 중은치아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 MA, 15777



매사추세츠 핵융합발전기업 CFS, 8억6천3백만 달러 투자 유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매사추세츠에 본사를 둔 핵융합 발전기업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스(Commonwealth Fusion Systems, CFS)가 8억6천3백만 달러(약 1조1천억원)에 달하는 신규 투자금을 확보했다.

보스톤비즈니스저널에 따르면 올해 벤처투자 가운데 최대 규모 중 하나로 꼽히는 이번 투자에는 엔비디아 벤처캐피탈 부문(NVentures)을 비롯해 기존·신규 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번 자금 조달로 CFS의 누적 투자금은 약 30억 달러에 이르게 됐다. 회사는 현재 기업가치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번 라운드는 목표액 8억 달러를 웃도는 규모로 조성됐다. 이는 2021년 18억 달러 규모 시리즈B 투자 이후 4년 만의 대규모 자금 유치다.

CFS는 이번 자금을 데븐스

(Devens)에 건설 중인 핵융합 실증 장치 'SPARC' 완성에 투입하고, 버지니아에 계획 중인 첫 상업용 핵융합 발전소 'ARC' 개발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ARC 발전소는 2030년대 초반 전력망에 처음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구글이 ARC 발전소에서 200MW 전력을 구매하기로 약정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끈 바 있다. 이번 투자 소식과 함께 열린 기자회견에서 밥 뎀가드(Bob Mumgaard) CEO는 "추가 자금 확보가 일정에 변화를 주지는 않는다"며 "ARC 발전소는 계획대로 2030년대 초반 전력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공개(IPO) 가능성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핵융합 기업은 언젠가 상장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당장은 사모 시장에서 충분히

〈전체 기사 읽기〉

자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유연하게 이해관계자들과 함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라운드에는 일본 미쓰이물산·미쓰비시 상사를 비롯해 12개 일본 기업 컨소시엄이 새로 합류했으며, 브레반 하워드(Brevan Howard), 모건스탠리 계열 카운터포인트 글로벌(Counterpoint Global) 등도 신규 투자자로 참여했다. 기존 투자자인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 에머슨 콜렉티브, 구글, 호슬라 벤처스, 타이거 글로벌 등도 다시 자금을 보냈다.

CFS의 데븐스 캠퍼스는 60에이커(약 24만평)에 달하며, 하루 평균 600~800명이 근무한다. 전체 직원 수는 약 1,000명 규모다. 회사는 이번 투자금과 관련해 신규 고용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9월부터 <정크 수수료> 법적 보호 시행

▶▶1면에 이어서

지하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소비자 보호 장치 중 하나로 평가된다.

정크 수수료란 무엇인가?

정크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처음 제시된 가격에는 포함되지 않다가 결제 직전에 추가되는 숨겨진 비용이나 불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예컨대 호텔이 1박 150달러라고 광고한 뒤, 결제 과정에서 '편의 수수료 5달러', '수건 사용료 3달러'를 붙여 실제 가격이 158달러로 올라가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는 '드립 프라이싱(drip pricing)'이라고도 불린다.

새 규정의 핵심: 총액 표시 원칙

앞으로는 판매자가 처음 제시하는 가격이 최종 가격이어야 한다. 단 세금과 배송비는 제외할 수 있다. 즉, 호텔은 150달러 대신 158달러를 총액으로 명시해야 한다. 필수 요금은 모두 광고 가격에 포함돼야 하며, 발레파킹과 같은 선택적 서비스 요금은 제외될 수 있다.

허위, 기만적 행위도 금지

미끼 상품(bait-and-switch) 방식, 즉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값싼 상품을 광고한 뒤 실제로는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도 금지된다. 특히, 자동차 판매 광고는 이런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자동 갱신 계약 규제

새 규정은 자동 갱신 계약(negative option contract)도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는 소비자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도 구독이나 회원권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 사례는 헬스클럽 회원권, 스트리밍 서비스

, 신문잡지 구독 등이다. 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되는 서비스도 포함된다.

사업자는 앞으로 두 가지를 의무화해야 한다. ▲정기적 고지: 매 결제 시점마다 소비자에게 금액과 취소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월간 구독의 경우 매월 고지해야 하며, 장기 계약의 경우 결제 5~30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간편 취소: 가입이 원클릭으로 가능했다면 해지도 원클릭이어야 한다. 서면 통보나 복잡한 절차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렌트, 식당, 배달 서비스 적용

임대인도 렌트 광고 시 모든 필수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수도·하수도 개별 계량 요금은 예외다. 음식점은 대규모 손님에게 의무 서비스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반드시 명확히 표시하고 종업원에게만 배분돼야 한다. 배달 서비스는 음식 가격에는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아도 되지만, 최대 필수 요금은 명시해야 한다.

집행과 소비자 권리

검찰총장은 규정 위반 사업자를 상대로 공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비자도 스몰클레임 등 법원을 통해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소송에서 승소한 소비자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받을 수 있다.

불만 신고 방법

소비자는 매사추세츠 검찰총장 소비자 핫라인(617-727-8400)으로 전화하거나 소비자 불만 접수를 통해 구제 신청할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2025 본당의 날

2025. 9. 21(주일)
대성전/본당마당

11:00 본당의 날 기념 미사
Clergy and Parishioners 모두 초대
모자 수고 감사 집회

12:30 식사 나눔 (성모초)

1:30 본당 회합 레크리에이션

본당의 날에는 오전 9시 30분 경에 미사가 있습니다. 안락 부탁드립니다.

본당 주소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 558-2711

가톨릭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여배신자 교리반 식별 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및 장소 9월 28일(주일) 오후 1시, 보스톤 한인성당 사제관
본당 홈페이지 참조 www.bostonkoreancatholic.com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불우한 한인 돕기 - 사랑 나누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한 지원

뉴턴에 위치한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주임 신부 배웅진 크리스토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보스톤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지원하는 "사랑나누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교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한인들을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성당으로 연락해 주시면 신부님과 사회복지분과에서 상담하여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 따뜻한 손길을 모아 물질적, 정서적, 영적 지원을 포함하는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문의 및 후원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전화: 617-558-2711
이메일: help@bostonkoreancatholi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에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매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련



케임브리지의 새 바람, 나인 윈터스 베이커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김유림 기자=케임브리지에 독창적인 매력을 지닌 베이커리가 문을 열었다. ‘나인 윈터스 베이커리(Nine Winters Bakery)’는 단순한 빵집을 넘어, 음식이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채운다는 믿음을 담고 있는 공간이다. 이 빵집의 더 특별한 점은 이곳에서 한국적인 풍미와 뉴잉글랜드의 감성이 만난다는 점이다.

창업자 마리스아 페롤라(Marissa Ferola)는 매사추세츠에서 자란 한국 입양인이다. 성인이 되어 자신의 뿌리를 탐색하기 시작한 그녀는 엄마가 된 후, 음식이라는 가장 친밀한 언어로 한국 문화를 되찾고 아이들과 나누고 싶었다. 그 결과가 바로 나인 윈터스다.

그녀와 함께하는 공동 창업자는 바로 두 딸, 자닌(Janine)과 윈터(Winter). 호기심 많고 새로운 음식을 즐기는 두 아이는 나인 윈터스의 메뉴에 영감을 주는 든든한 파트너다.

메뉴는 한국의 전통과 창의성의 만남으로 탄생했다. 적당히 달콤하고, 한국적인 풍미가 스며있는 즐거움으로 아이들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목표로 한다.

브라운 버터 쿠키에 고소한 참깨와 초콜릿 청크인 ‘블랙 세서미 초콜릿 칩’ 과, 씹싸름한 썩과 바닐라가 어우러진 쿠키 ‘썩스월’ 이 대표적이다. 밀크브레드 메뉴도 눈길을 끈다. 고추장 시트러스 스타키 번, 인절미 크림 번, 코리아 갈릭 브레드는 한입만으로도 이곳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다. 케이크 라인업은 더 독창적이다. 초콜릿 막걸리 케이크, 탠저린 바닐라, 블루베리 업사이드 다운이 대표적이다.

아침에는 계란빵이나 과일 파르페, 점심에는 고추장 볼로네제, 그리고 데빌드 마약 계란 같은 메뉴도 준비돼 있어 하루 어느 때든 새로운 맛을

〈전체 기사 읽기〉
즐길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적 감성과 실험적인 정신을 살린 시그니처 커피메뉴는 각테일 바를 연상시킨다. 로즈마리 시럽, 스모크 라이트 로스트, 레드아이로 만든 ‘짬질방 커피’ 로 상상이 가지 않는 조합을 선보인다. 또한 팻 위시드 커피, 사과, 생강, 스모크 글라스로 만든 ‘갈비커피’, 솔티드 커피 토닉과 오렌지 마말레이드로 만든 ‘제주 아일랜드 커피’ 도 있다.

여기에 된장 카라멜, 들깨 시럽, 고추장 모카 같은 시럽을 추가하면 한국인이라도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다.

나인 윈터스는 빵과 커피뿐 아니라, 문화를 나누는 공간을 지향한다. 가게 내부에는 한인 아티스트 심기완과 서울 기반 브랜드 제도 세라믹스의 도자기가 쓰이고, 벽에는 아티스트 아스트로 윙사락의 벽화가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는 입양인 네트워킹, 다문화 어린이 스토리타임, 셰프 팝업 등 다양한 커뮤니티 이벤트도 열릴 예정이다.

나인 윈터스는 단순한 베이커리가 아니다. 한국의 뿌리, 새로운 전통,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가 공존하는 이곳에서, 마리스아 페롤라는 가족의 이야기를 빵과 커피로 풀어내고 있다. 다음 주말, ‘썩스월’ 쿠키와 ‘제주 아일랜드’ 한 잔을 곁들여, 그녀의 이야기를 맛보는 건 어떨까?

위치: 292 Concord Ave
Cambridge, MA 02138
영업시간: 오전 9시- 오후 3시 30분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ninewintersma/?hl=en>
웹사이트: <https://www.ninewinters.com/>
bostonkorean@hotmail.com

비타민 D, 세포 노화 늦춘다...브리검 여성병원 연구팀 “4년간 임상시험 결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브리검엔위먼스 병원(Brigham and Women’s Hospital)과 하버드대 연구진이 4년에 걸친 임상 연구에서 비타민 D 보충제가 세포 수준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새로운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기사 읽기〉

미한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보스톤대 의대의 비타민 D 권위자인 마이클 홀릭(Michael Holick) 교수는 보스톤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비타민 D 결핍은 심혈관질환, 제2형 당뇨병, 감염병 등 다양한 질환 위험을 높인다”며 “이번 결과는 비타민 D 보충제가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기존 연구와 일관된다”고 평가했다. 홀릭 교수는 이번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연구는 흔히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비타민 D3 보충제의 실제 항노화 효과 여부를 대규모 무작위 임상시험(Randomized Clinical Trial) 방식으로 검증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메리칸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5월호에 게재된 연구는 참가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절반은 매일 2,000 IU의 비타민 D3를 4년간 복용했고, 나머지는 가짜약(placebo)을 섭취하게 한 후 생물학적 노화를 분석했다.

다만 연구진은 비타민 D 보충제가 건강한 식단과 생활습관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맨슨 교수는 “과일·채소·통곡물이 풍부한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중요하며,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보완적 수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겨울철 햇볕 노출이 적거나, 식이 제한으로 비타민 D 섭취가 어려운 경우 하루 1,000~2,000 IU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은 “보험과 같은 차원에서 합리적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의 세포 염색체 말단에 위치한 ‘텔로미어(telomere)’ 길이에 주목했다. 텔로미어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짧아지며, 짧아질수록 염색체 전체가 손상돼 염증, 만성질환, 암,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노화 관련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홀릭 교수 역시 환자들에게 최소 2,000 IU의 비타민 D3를 매일 복용할 것을 권고한다며, “비타민 D 결핍은 사망 위험을 유의미하게 높인다”고 강조했다.

하버드 의대 및 브리검 여성병원 교수이자 연구 책임자인 조앤 맨슨(JoAnn Manson)은 “비타민 D 보충제가 세포 수준에서 노화를 유발하는 핵심 경로 중 하나인 텔로미어 단축을 막아주는 효과가 확인됐다”며 “4년간 보충제를 복용한 그룹의 텔로미어 길이는 실제로 1년치 노화에 해당하는 수준에 불과했지만, 위약 그룹은 4년치 노화와 일치했다”고 밝혔다.

비타민 D의 섭취는 어린이들에게도 중요하다. 레딩 페디아트릭 어소시에이츠의 민해식 소아과의는 “뉴잉글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햇빛을 통해 충분한 비타민을 공급받을 수 없다”며 어린이의 경우 하루 “600IU 용량의 복용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민 박사는 “시중에 판매되는 것은 대부분 1,000IU이므로 2일에 한번 꼴로 복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권장했다.

이번 연구는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의 항노화 효과도 함께 살폈지만, 유의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PGA**

617.458.2733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HA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애프터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mchae@dependableusa.com
web: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USGTF**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CHOISIGNS 간판 및 사인

CHOISIGNS 간판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우스터 레드삭스 코리안 나이트 최근 케이팝처럼 핑퐁 터졌다

▶▶1면에 이어서

케이팝 음악에 맞춘 불꽃놀이로 장식됐는데, 구단 측은 코리안 헤리티지 나이트를 특별히 불꽃놀이가 있는 금요일로 정하고, 불꽃놀이 음악 역시 케이팝으로 채택하는 등 행사를 위해 공을 들였다.

이보다 앞선 오후 3시에는 우스터 시청 앞에서 시 관계자, 보스턴 총영사관, 한인들이 함께 태극기를 게양하고 기념식을 가졌다. 매

사추세츠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우스터가 보스턴에 이어 태극기를 게양한 것은 의미가 크다. 조시 패티 우스터 시장은 선언문을 낭독했고, 김재휘 총영사가 축사를 전했다.

행사를 기획한 최지원 매니저는 “행사 후 회의에서 동료들로부터 다른 문화 행사도 한국의 날처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다” 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보스턴 총영사관과 함께 이번 행사를 준비해왔으며, 김재휘 총영사도 기회가 될 때마다 코리안 헤리티지 나이트를 설명, 홍보하며 한인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인 H씨는 “미국에서 케이팝 음악에 맞춘 불꽃놀이를 감상할 수 있다는 게 감동적이었다. 특히 아이와 함께 한복을 차려입고 온 가족을 볼 수 있어 더욱 좋았

다” 고 전했다. 한인 K 씨는 “신문에서 한국 음식이 판매된다고 읽었는데, 불고기 타코는 기대에 못 미쳤다. 한국 음식을 따로 판매하는 부스가 있었으면 한다” 고 아쉬움을 전했다.

editor@bostonkorea.com



22일 우스터 시청 앞에서 태극기 게양 기념을 마치고 보스턴총영사관 김재휘 총영사 및 관계자들과 한인들 그리고 우스터 시청 관계자들이 함께 촬영했다



시구를 준비하고 있는 백민지 영사



태권도 시범단의 시범



한복을 차려입은 한인 가족이 관중석에서 인사하고 있다



케이팝 댄스그룹 엄브라가 플라파크 메인게이트 앞에서 댄스를 선보이고 있다



케이팝 음악에 맞춰 진행된 불꽃놀이

보스톤 다이내믹스, 인간처럼 정밀한 휴머노이드 로봇 영상 공개

‘대규모 행동 모델(Large Behavior Model, LBM)’ 인간의 시연보고 빠르게 습득 보스톤 다이내믹스와 토요타 리서치 인스티튜트 합작으로 발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매사추세츠주 월담(Waltham)에 본사를 둔 로봇 기업 보스톤 다이내믹스(Boston Dynamics)가 인간과 유사한 정밀 동작을 구현한 휴머노이드 로봇 영상을 공개했다. 보스톤 다이내믹스는 현재 현대자동차 그룹이 소유하고 있다.

이번 영상은 보스톤 다이내믹스와 토요타 리서치 인스티튜트(Toyota Research Institute)가 공동으로 8월 20일 발표했으며, 공개된 지 며칠 만

에 조회 수가 86만 회를 넘어섰다. 영상 속 로봇 ‘아틀라스(Atlas)’는 상자를 옮기고, 뚜껑을 열고 닫으며, 물체를 들어 올리는 등 복잡한 작업을 연속적으로 수행했다. 연구진은 이를 “로보틱스와 인공지능 연구의 큰 도약”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적용된 ‘대규모 행동 모델(Large Behavior Model, LBM)’은 기존에 수많은 코드를 직접 작성해야 했던 새로운 기능을, 인간 시연을 통해 빠르게 추가할 수 있도록 설

계됐다. 두 기관은 “LBM을 활용하면 긴 시간과 높은 정밀도를 요하는 복잡한 작업도 별도의 코드 작성 없이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촬영 과정에서 연구진은 하키 스틱으로 상자의 뚜껑을 단거나 상자를 밀어 움직이며 변수를 주었지만, 아틀라스는 상황에 맞춰 즉시 반응하며 뚜껑을 다시 열거나 상자를 제자리에 되돌려 놓았다.

보스톤 다이내믹스 로보틱스 연구 부사장 스킷 쿠인더스마는 “이 연

〈전체 기사 읽기〉

구는 향후 우리의 삶과 일터를 바꿀 범용 로봇 개발 방향을 보여준다”며 “단일 신경망으로 장기적 조작 과제를 학습시키면 일반화 성능이 크게 향상되고, 아틀라스 같은 고성능 로봇은 정밀성·손재주·힘이 필요한 데이터 수집에서도 장점을 갖는다”고 말했다.

토요타 리서치 인스티튜트의 대규모 행동 모델 부문 수석 부사장 러스 테드레이크는 “기존 프로그래밍 방식으로는 이 과제를 확장할 수 없었지만, LBM은 인간의 시연을 통해 기술을 빠르게 확장한다”며 “모델이 강력해질수록 더 적은 시연으로도 더욱 정교한 행동을 구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매사추세츠 변호사 시험 합격률, 미국 평균 밑돌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

부 = 올해 변호사 시험을 치른 매사추세츠 응시자의 합격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톤비즈니스저널이 보도했다.

미국 변호사협회(ABA)에 따르면, 전국 데이터를 집계한 2월 시험에서 매사추세츠 응시자의 합격률은 약 46%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플로리다와 네바다와 함께 전국 29위에 해당하며, 중간 이하 수준이다.

다만 매사추세츠는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로드아일랜드(54%, 전국 공동 7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전국 최고 합격률은 유타주(72%)였고, 최저는 앨라배마(28%)였다.

매사추세츠 내 9개 로스쿨 졸업생들 사이에서도 합격률 차이는 컸다. 하버드 로스쿨의 경우 이번 2월 시험에 응시한 졸업생 4명 전원이 합격했다. 이는 대부

〈전체 기사 읽기〉

분의 2024년 졸업생들이 이미 지난해 여름 시험에서 합격했기 때문이다.

반면, 전체 응시자 513명 가운데는 주의 로스쿨 출신을 포함한 다양한 배경의 졸업생들이 있었으며, 이 중 235명이 합격했다. 서퍽대학교 로스쿨은 응시자가 가장 많았으며(101명), 이 중 54명이 합격했다.

변호사 시험은 주별로 매년 2월과 7월 두 차례 치러진다. 일반적으로 7월 시험은 가장 최근 졸업한 로스쿨 학생들이 대거 응시해 합격률이 높은 반면, 2월 시험은 이전 시험에서 불합격한 이들이 재도전하는 경우가 많아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아직 2025년 7월 시험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매사추세츠 변호사 시험에서는 응시자 1,717명 중 76%가 합격해 전국 공동 13위(네브래스카와 동일)를 기록한 바 있다.



보스톤의 한글교육, 보스톤한국학교가 책임집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재가 확실하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사진이 확실하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국문화가 확실하다!
첫째,	뉴잉글랜드 유일의 단계별 학습교재 사용!
둘째,	교사 경험 3년 이상의 교사 유치!
셋째,	붓글씨, K-POP, 전통놀이, 한국요리 체험학습!

결론은 보스톤 한국학교입니다!

37년 전통의 보스톤 한국학교에서 2025-2026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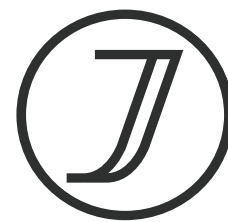
연락처 | 강상철 교장 Email: uno@sangkang.com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4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2024, 2025년**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2025)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 2025년 **Boston Magazine** 선정 '최고의 에이전트'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Real Trends Verified 2024, 2025**)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엔비디아 전망은?... "성장세 둔화" vs "AI 투자 여전히 강력

2분기 실적·3분기 전망에 평가 엇갈려... "중 매출 회복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가 27일(현지시간) 2분기(5~7월)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향후 성장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2년 동안 급성장한 엔비디아의 성장세가 둔화 조짐을 보인다는 시선과, 반대로 이번 실적이 기업들의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긍정적인 시각이다.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각각 467억4천만 달러(65조1천555억원)와 1.05달러(1천463원)를 기록해 월가 예상치 매출 460억6천만 달러와 주당 순이익 1.01달러를 각각 '살짝' 웃돌았다.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늘어난 5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제시하면서 월가 전망치 531억4천만 달러를 상회했다.

실적은 월스트리트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뉴욕 증시 시간 외 거래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3% 이상 빠졌다.

이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컸던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AI 열풍 이후 엔비디아는 매 분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내놓으며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 이번 실적 발표 또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

실적 우려가 컸던 지난 1분기 때에도 매출은 440억6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월가 예상치 433억1천만 달러를 눈에 띄게 웃돌았다. 당시 H20 칩의 중국 수출이 제한됐는데도 시장 예

상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그런 이전 실적과 비교해 이날 발표된 2분기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살짝 웃도는 수준에 그쳤다.

여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 증가율은 56%로 AI 열풍이 시작된 이후 성장률은 가장 낮았고, 3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일부 분석가가 600억 달러 이상을 전망한 것보다 크게 미치지 못했다.

특히,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포함한 데이터센터 부문은 411억 달러를 기록해 평균 예상치 413억 달러를 하회했다.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예상치를 밑돈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엔비디아가 이번 분기에 대해 다소 부진한 매출 전망을 내놓았다"며 "지난 2년간의 폭발적인 AI 투자 호황 이후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전망은 AI 시스템 투자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더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장조사기관 e마켓러 애널리스트 제이콥 본은 "대형 데이터센터 운영업체들이 AI 응용 프로그램의 단기 수익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투자 속도를 다소 늦출 수 있다는 신호가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사상 최고 매출 기록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엔비디아가 "중국 판매 차질에도 매출이 기



록을 경신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엔비디아가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월가와 전 세계 투자자들의 불안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몇 달간 주요 대형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를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쏟아부으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컸는데 이번 실적이 불안을 줄였다는 것이다.

S&P 글로벌의 멜리사 오토 연구 책임자는 "AI 열풍이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둔화할 것인가가 관건이었다"며 "만약 엔비디아가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시장을 흔드는 수류탄'이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 매출 회복에 대한 전

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은 엔비디아 성장세에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엔비디아는 중국용 칩 H20을 판매해오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수출이 제한됐다. 이후 7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판매 재개를 승인하면서 금세 중국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H20 칩의 수출 제한이 없었다면 2분기 실적 전망치가 약 80억 달러 더 높았을 것이라고 엔비디아는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 승인은 지연되고 있고 중국 수출 허가 대가로 중국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할 것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콜레크 크레스 엔비디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 지연으로 중국 판매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빨리 승인한다면 3분기에 최대 5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엔비디아는 보고 있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중국은 엔비디아 칩 견제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엔비디아에 크게 의존했던 중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엔비디아 칩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은 일부 출하를 허용하는 대신 매출의 15%를 가져가겠다는 방안을 내놨고, 중국 정부는 반대로 미국 기술 의존도를 줄이라고 독려한다"며 "엔비디아의 매출 회복 전망은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중환 교외이비인후과
www.junghwan.co.kr

좋은사람들
www.junghwan.co.kr
성모안과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이상 수술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해의의료시업팀장
김수남

'질병 총괄' 美CDC 국장, '백신 음모론' 복지장관에 맞서다 해임

백신정책 변화에 저항하며 사임 거부...백악관 "대통령 정책 따르지 않아"

(워싱턴 = 연합) 김동현 특파원 = 미국에서 질병 대응을 총괄하는 당국자가 백신의 효능을 의심하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책 갈등을 빚다 취임 한 달도 안돼 해고됐다.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수전 모나레즈 질병통제 예방센터(CDC) 국장이 27일(현지시간) 해임됐다.

쿠시 디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모나레즈 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의제에 동조하지 않았고 사임을 거부해 해임됐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은 모나레즈 국장이 백신 정책을 바꾸려는 상부의 압력에 저항한 게 축출 이유였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 수장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그의 지지자들은 CDC가 제약 업체와 백신 제조사들의 입장을 너무 들어줬다고 비판해왔다.

'백신 음모론'로 유명한 케네디 장관은 백신 연구 예산을 삭감하고, 백신 자문위원회를 해체했으며, 새 코로나19 백신을 '고위험군'에만 한

정해 승인하는 등 지금까지의 백신 정책을 뒤집어왔다.

또 케네디 장관은 모나레즈 국장에게 이번 주 내로 고위 참모들을 해고하라고 압박했다고 WP는 전했다.

이번 주 CDC에서는 모나레즈 국장 외에도 4명의 고위 당국자가 사임했다.

모나레즈 국장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비과학적인 정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모나레즈 국장의 변호인은 성명에서 그녀가 "비과학적이고 무모한 지시에 그냥 도장을 찍거나 헌신적인 보건 전문가들을 해고하기를 거부했다"면서 "정치적 의제를 따르기보다 공중을 보호하기를 선택했고 그 때문에 표적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건 한 당국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중 보건 제도의 체계적인 해체, 전문가들의 압박, 과학의 위협한 정치화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나레즈 국장은 지난 7월 31일 취임했으며 역대 국장 중 최단기간 재임했다.

bluekey@yna.co.kr



사임한 모나레즈 질병통제센터 국장

하원 공화당, 위키피디아 조사... '정치편향 의혹' 제기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 연방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미 일간 USA투데이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의원들은 위키피디아가 백과

사전 항목에 편향적인 시각을 주입하려는 조직적인 시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USA투데이가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회와 사이버보안 소위원회는 마리아나 이스칸테르 위키

피디아 최고경영자(CEO)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납세자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학술기관의 외국 활동 및 소속 개인이 미국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당신과 가족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기관,
바로 곁에 있습니다.

소아우울증을 위한 도움이 내 곁에 | 🔍

정신건강 위기 관리 기관, 가까운 곳에서
지금 바로 이용하세요.

위기에 처한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세요?

가까운 행동건강센터를
찾아보세요.

mass.gov/CBHC



김카다시안도 받은 K-시술...피부와 외국인 환자 15년새 117배

작년 방한 외국인 환자 중 피부과 비중이 56.6%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한우리나라 피부과를 찾은 외국인 환자가 지난 15년간 117배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4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해 피부과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는 총 70만5천44명이었다.

전년도 23만9천60명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이 시작된 2009년의 6천15명과 비교하면 15년 사이에 117배 급증했다.

이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숫자 자체가 19배가량 많이 늘긴 했지만, 피부과 진료 환자의 증가세는 이보다 훨씬 가팔랐던 셈이다.

전체 외국인 환자 진료 건수에서 피부과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엔 9.3%에 그쳤지만, 지난해엔 56.6%로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최근 5년간만 놓고 봐도 2019년엔 외국인 환자들의 진료 과목 가운데 일반내과·소화기내과·순환기내

과 등을 모두 합친 내과통합이 19.2%로 비중이 가장 크고, 성형외과(15.3%), 피부과(14.4%) 순으로 뒤를 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피부과가 1위로 올라섰다.

2024년 기준 피부과에 이어 성형외과(11.4%), 내과통합(10.0%), 검진센터(4.5%) 순으로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았다.

의원급만 보면 피부과 비중이 72.6%를 차지했다.

지난해 피부과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 중엔 일본 국적이 43.7%로 가장 많았고, 중국(24.4%), 대만(9.6%), 미국(5.7%), 태국(3.5%) 순이었다.

최근엔 미국 유명 인플루언서 김카다시안이 한국을 방문해 피부과 시술을 받은 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다.

카다시안은 동생 클로이 카다시안과 함께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에 위치한 복수의 피부 클리닉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mihye@yna.co.kr



김카다시안의 인스타그램 캡처

'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세번째 소송 오늘 결론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한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의 결과가 28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유 씨가 주로 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의 1심 결과를 선고한다.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유 씨가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결과도 이날 나온다.

국내에서 유명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 씨는 당시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돌연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 씨는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

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다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

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 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AUG. 29th - SEP. 4th, 2025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WE ALL DESERVE THE BEST
LABOR DAY EVER!

즐거운 노동절 준비는 H마트와 함께하세요!

We salute all of you and your hard work with one of the best sales of summer.

GOCHUJANG PASTA

A fusion masterpiece of bold, creamy, and rich flavors, this Gochujang Pasta will warm your soul and leave a lasting craving.

고소한 크림에 고추장의 매력을 더한 파스타, H마트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FRI/SAT/SUN ONLY 금, 토, 일 한정판매	DRISCOLL'S Strawberry 드리스콜 딸기 2 LB/PKG \$7.99	Longan 롱간 LB \$2.99	White Peach/White Nectarine/Yellow Plum 백도/백천도/노란 자두 LB \$2.49	Green Onion 파 BUN FOR \$1.99	Chinese Eggplant 중국 가지 LB \$0.99	Shanghai Choy 청경채 LB \$0.99	Yellow Corn 노란 옥수수 EA FOR \$1.99
U.S.A. #1 Potato 감자 PKG \$1.99	Washington Red Cherry 체리 LB \$3.99	Young Coconut with Straw 빨대 달린 영코코넛 EA \$4.99	Lychee 리치 LB \$1.99	Persian Cucumber 페르시아인 오이 1 LB/PKG \$0.99	Lago Grape 라고 포도 BOX \$19.99	Seedless Watermelon 씨없는 수박 JUMBO EA \$3.99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U.S.D.A. CHOICE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 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9.99	U.S.D.A. CHOICE Fresh Boneless Pork Loin Chops 생 뼈없는 등심 폭잡 LB \$5.99
BBQ PICK Fresh Sliced Pork CT Butt Steak 생 돼지 목살 (소금구이용) LB \$7.99	BBQ PICK Fresh Pork Single Belly 생 돼지 삼겹살 (수육용) CHUNK/LB \$7.99
BBQ PICK Fresh Boneless Chicken Thigh 생 뼈없는 닭 사태 LB \$3.99	U.S.D.A. CHOICE Marinated Beef Short Ribs (LA Style) 양념 LA 갈비 SLICED/LB \$16.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Live Abalone from Wando 완도산 활전복 PRODUCT OF KOREA/EA \$2.99	Frozen Red Snapper 홍도미 LB \$8.99
Frozen Golden Pompano 금병어 600-800'S/LB \$3.99	Frozen Swai Fillet 스와이 필렛 LB \$2.99
Frozen Small Octopus 주꾸미 5-15'S/LB \$4.99	Sliced Dried Pollack 황태채 LB \$17.99

SMART CARD MEMBER ONLY

H MART SMART CARD ONLY NONGSHIM Shin Bowl Noodle Soup 농심 신라면 사발면 \$7.99 3.03 OZ X 6 EA/BOX	H MART SMART CARD ONLY NONGSHIM Hot & Spicy Bowl Noodles 농심 육개장 사발면 \$7.99 3.03 OZ X 6 EA/PKG
H MART SMART CARD ONLY HAITAI Crushed Pear Drink 해태 갈아만든 배 \$11.99 8.04 FL OZ X 12 CANS/BOX	H MART SMART CARD ONLY HAITAI Traditional Rice Drink Shikhye 해태 큰집 식혜 \$11.99 8.04 FL OZ X 12 CANS/BOX

RAW NATURE Cooked White Rice 자연담은 자연미 흰쌀밥 7.4 OZ X 12 BOWLS/PKG \$9.99	RAW NATURE Cooked Brown Rice 자연담은 자연미 현미밥 7.4 OZ X 12 BOWLS/PKG \$9.99	CJ Bibigo Tteokbokki Sweet & Spicy 비비고 킵떡볶이 오리자닐 4.4 OZ X 6 EA/PKG \$9.99	HAIO Premium Sesame Oil 해오름 참진한 참기름 56 FL OZ \$16.99	KWANGCHEON Green Tea Seaweed 광천 청파래 녹차김 0.17 OZ X 16 EA/PKG \$5.99
PULMUONE Soupy Topokki 풀무원 국물떡볶이 SPICY/14.9 OZ 2\$9 FOR	PLZ Stir-Fried Baby Octopus 부탄해 주꾸미 SPICY/1.1 LB \$9.99	NONGSHIM Snack Mix 농심 스낵믹스 17.9 OZ (8 BAGS/BOX) \$8.99	ORION Custard Soft Cake 오리온 카스타드 0.81 OZ X 12 EA/PKG \$3.99	ORION Cham Bungobbang Moist & Chewy Cake 오리온 참봉어빵 8.18 OZ \$3.99
CROWN Caramel Corns 크라운 카라멜콘과 땅콩 16.23 OZ (10 EA/BOX) \$8.99	SAHMYOOK Soymilk with Black Bean, Walnut & Almond 삼육 검은콩 호두 & 아몬드 두유 6.5 FL OZ X 20 EA/PKG \$13.99	KAKAO FRIENDS Straight Pencil Case 카카오 프렌즈 일자필통 LITTLE APEACH/LITTLE LION \$7.99 \$4.99 EA	KAKAO FRIENDS Lovely New Semester Bound Notebook 카카오 프렌즈 러블리 신학기 제본 노트 LITTLE APEACH/LITTLE LION \$1.99 \$1 EA	HELLO HOME Unisex Slides 헬로홈 남녀공용 슬라이드 \$6.99 PAIR \$7.99 PAIR \$4.99 \$5.99

100% 한국산 재료로 정성껏 만든 대한민국 대표김치, **종가 김치!**

JONGGA ENJOY KOREA'S FAVORITE KIMCHI HERE IN AMERICA!

Made with 100% Korean ingredients, JONGGA Kimchi offers taste you can trust!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제봉 DIRECTOR 781.654.5281 j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권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ellysong@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손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k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ahn@bostonpremierrealty.com
---	---	---	--	---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c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김지현 978.494.2043 jim@bostonpremierrealty.com	 노미연 617.447.0501 nohmiyeon@bostonpremierrealty.com	 박주 617.780.7639 tjpark@bostonpremierrealty.com	 장지희 978.866.3248 tjjang@bostonpremierrealty.com	 이진우 401.538.3397 rylee@bostonpremierrealty.com
 박소연 617.338.0787 soyeon@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김 617.455.7710 grace.kim@bostonpremierrealty.com	 김수진 617.528.6973 kimsoojin@bostonpremierrealty.com	 민소연 253.503.0347 minsoyeon@bostonpremierrealty.com	 박지희 413.507.1400 parkjihee@bostonpremierrealty.com	 손정태 617.913.3348 sonjungtae@bostonpremierrealty.com
 최진진 617.877.0387 jinjin@bostonpremierrealty.com	 이정순 781.836.3412 soonyee@bostonpremierrealty.com	 한혜숙 781.959.1214 hanheesook@bostonpremierrealty.com	 장혜정 617.915.1162 jjang@bostonpremierrealty.com	 이중국 617.543.0728 leejunggook@bostonpremierrealty.com	 박진희 404.641.9102 parkjinhee@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917.294.5810 tammywoolfolk@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8482 nancywang11@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531.0314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Vivian Ye 617.936.2713 vivianye@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2.8979 xian@bostonpremierrealty.com	 Lu Jiong 248.449.0117 jiong@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888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rra 978.873.0076 msorra@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u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8.26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6.7212 lily@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08.025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	 정혜민 박 201.446.8995 min@bostonpremierrealty.com	 재미경 김 781.506.0409 kim@bostonpremierrealty.com	 이신현 857.260.0434 shin@bostonpremierrealty.com	 Mini Belanger 413.257.1586 mini@bostonpremierrealty.com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북중대화 파악 후 북미대화 추동... '한반도 페이스메이킹' 먹힐까

김정은 다자외교 데뷔...강훈식 "미리 알아, 한미정상회담에도 영향" '북미대화 추동 기획 판단한 듯...한미일 vs 북중러 대립 부각될수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구상하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구체적 '액션 플랜'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자외교에 데뷔할 조짐을 미리 읽고, 이에 맞춰 더 큰 대화의 장으로도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전면에 서기보다는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를 우선 추진하는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한미일 협력에 대립하는 북중러 공조만 부각되는 모양새로도 흐를 수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계획의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의 다음달 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과 관련, "정부는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오늘 아침 발표한다는 얘기도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한미정상회담도 이런 영향이 기초로 깔려 있다"며 "우리가

잘 된 것들을 이쪽(북한과 중국)의 움직이는 흐름에 대한 연장선에서 해석해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라고 권유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강 실장의 설명대로면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방중 계획을 사전에 알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대화를 요청한 셈이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이 2011년 집권 이후 처음으로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한다는 것 자체로도 멈춰 있던 '한반도 시계'를 돌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그간 러시아와 밀착을 강화한 반면 중국과는 다소 소원한 관계를 보여 왔는데, 2019년 이후 6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는 데에서는 외교적 스탠스의 미묘한 변화가 읽히는 면이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과 관계가 좋다고 공언해 온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도록 만들면 북미 대화의 물

꼬도 틀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지 확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내놓은 '페이스메이커'론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 해석도 가능하다.

한국의 거둬들인 대화 손짓에 북한이 무시로 일관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페이스메이커'로 전면에 세우고 이 대통령은 '물밑 조연'을 자처한 것이다.

북미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경우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북한을 또 다른 다자외교의 자리로 유도해 남북미 대화로 확장할 수 있다는 예측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실제 이런 희망대로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정반대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와 맞물

려 이번 전승절이 북중러 공조가 가속화하는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이 대통령의 한미일 협력 중시 기조로 인해 북한과 중국의 관계 개선 욕구가 자극된 결과라고 볼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도

다. 이처럼 아직은 움직임은 나타났지만 그 성격을 명확히 정의할 수 없는 만큼 대통령실과 정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충실하며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하거나 회담을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과 우리가 사전에 뭘 계획하고 각본을 짤 수 있는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면서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이번 전승절 열병식에는 이 대통령을 대신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할 예정인 만큼 이 대통령을 대신에 우 의장이 김 위원장과 접촉을 모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sncwook@yna.co.kr

대통령실 "김정은 방중 미리알아... 이런 흐름이 한미 회담에 영향"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더 대통령실은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다음달 3일 중국 항일전쟁 승전(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열병식 참석 계획이 발표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이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관계기관을 통해 (김 위원장의 방중 계획을) 알고 있었고, 오늘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도 오늘 아침에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특히 "이번 한미정상회담도 이런 일들의 영향을 기본으로 받았다"며 "(한미회담에서 논의가) 잘된 부분들에 대해 이런 흐름에 대한 연장선에서 해석해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 김정은도 만나달라"고 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추진하겠다. 올해 만나고 싶다"고 화답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정상 간 만남을 추진해볼 수 있는 것이냐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강 실장은 다만 "아직 (북미 대화의) 공간이나 방식, 시기 등을 확정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강 실장은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대화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향후 남북 간 채널을 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중러 밀착 움직임'에 대해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물음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의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한) 남북 간 대화와 협력 채널은 늘 열려 있다"고 답했다.

hysup@yna.co.kr



40 Celebrating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AUG. 28TH - SEP. 4TH, 2025



LOTTE Milkis Cream Soda Variety Pack

롯데 밀키스 버라이어티 팩 LIMIT 2

\$11.99

**ORIGINAL+STRAWBERRY+MELON+APPLE
8.45 FL OZ X 24 CANS/BOX**



EUNYUL Natural Moisture Sheet Mask
은율 내츄럴 마스크팩



**SELECTED VARIETIES
REG. 10 EA FOR \$9.90**

10 \$3.90
EA/FOR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Somerville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야만의 시대, 링 위에서 싸운 그녀들...80년대 비튼 '애마'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1980년대, 유신정권 다음으로 전두환이 권력을 잡으면서 이른바 '3S'(Sports · Screen · Sex) 정책이 시행된다. 계속된 군사 독재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꺼내든 우민화 정책이다.

정치적 배경이 어떻든, 충무로에는 활기가 돌았다. 검열이 완화되자 예로영화가 대거 제작됐고, 사람들은 극장으로 몰려들었다.

지난 22일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애마'는 그 시절 대표적인 성애영화인 '애마부인'의 제작기를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풀어간다.

1980년대를 '새 시대'라고 칭하는 신성영화사의 구중호(진선규 분) 대표는 3S 정책에 발맞춰 화끈한 예로 영화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당대 최고의 여배우이자 국제영화제에서 상까지 받은 신성영화사 소속 정희란(이하늬)은 출연은 해도 더 이상 노출 연기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그러면서 예로영화 '애마부인'의 여주인공을 찾기 위한 오디션이 열리고 낮에는 여공, 밤에는 밤무대 백댄서로 일하던 신주애(방효림)가 캐스팅된다.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아남은 톱스타와 기세 하나로 스크린을 씹어먹을 듯한 패기 넘치는 신인이 함께 영화를 만들어간다.

'애마' 속 가장 큰 키워드는 연대다. 희란과 주애의 대립이나 견제는 초반에만 등장할 뿐 그 뒤로 둘은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이가 된다.

주애는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희란을 꼽고, 희란은 주애를 향해 "잘 웃네, 잘 울고, 너 같네"라고 차가운 듯 따뜻한 말로 연기를 칭찬한다.

둘의 관계는 영화 안에서만 머물지 않는다.

고위층 연회 자리에 불려 나갔지만 성 접대를 거부하는 주애를 감싸기 위해 희란이 언짢아하는 권력자를 달래기도 하고, 잡혀갈 위기에 놓인 희란을 주애가 말타고 달랠려와 구하기도 한다.

영화가 인기를 끌고 난 뒤 주애는 한 일본 토크쇼에 출연한다.

토크쇼 MC가 한국에서 섹시스타로 사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고 묻는 말에 이렇게 답한다.

"뒀에 올라간 기분 비슷해요. 맷집으로 버티고 약으로도 강으로도 버티고 아무리 애를 써도 언젠가 케이오(KO) 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매일 하루씩 싸우는 자체가 중요하고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라는 생각을 하면 막상 두려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직 링 위에 함께 있어요."

이 대사는 주애와 희란을 넘어 그 시대를 살아낸 여배우들, 그때도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싸우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응원과 지지처럼 느껴진다.

마지막 회에서 '애마부인'의 실제 배우인 안소영이 특별출연해 공로상 시상자로 나선 것도 이러한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야만과 낭만이 교차하던 1980년대를 재현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화가가 그린 충무로 극장 간판, 당시 충무로의 사랑방 노릇을 했다는 청맥 다방, 타자기로 완성한 영화 원고 등이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형광 아이새도로 눈두덩이를 칠하고 빨갈게 입술을 그린 그 시절 화장, 부풀린 머리카락과 더 크게 부푼 어깨선을 자랑하는 패션도 화면 속에서 되살아났다.

그렇다고 1980년대를 아름답게만 묘사하지는 않았다.

배우 지망생이던 미나(이소이)는 접대에 불려 나갔다가 마약을 강제로 흡입해 사망하고, 희란의 폭로에 구중호 사장은 남산 취조실에서 구타를 당한다.

'3S' 정책에도 검열이 여전히 존재하고, 1988년 하계 올림픽을 유치했다며 국가 경사라고 축하하는 와중에도 여배우들은 술시중을 들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무릅쓰기도, 가법지도 앓게 그렸다.

곳곳에 무거운 이야기를 배치했지만, 동시에 코미디라는 장르적 매력도 잃지 않았

다. '애마부인'의 '애마'(愛馬)라는 단어가 검열에 걸리자 밤새 칠판에 다른 뜻의 한자 '마'를 찾으며 골몰하는 감독의 모습, 지금껏 없었던 예로, 그로테스크, 난센스 장르를 섞은 영화를 만들겠다고 알몸의 남자 배우를 붉은 끈으로 묶어 베란다에 매다는 모습이 대표적이다.

배우들 대신 '가다마이'(대역) 역할을 해야 하는 스태프의 고역스러운 성애 장면과 '애마부인'의 원래 남자 주인공이었던 배우 허혁(현봉식)이 치명적인 매력을 뽐내는 장면은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계속 보게 된다.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았지만 선정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성의 몸과 정사 장면을 자극적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애마부인'을 떠올리며 기대했던 사람들이 실망했다는 반응을 남기는 것으로 '애마' 시리즈는 완성되는 듯하다.

heeva@yna.co.kr

12지신 묘사한 한국형 히어로 등장... '트웰브' 8.1% 출발

(서울=연합뉴스) 고기혜 기자 = 동양의 12지신을 모티브로 한 한국형 히어로물 '트웰브'가 8%대 시청률로 출발했다.

첫 회에서는 수천 년간 특별한 힘을 숨긴 채 인간 세상에 적응해 살아가는 12천사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조직 폭력배와 범죄자들을 위한 사채업체를 운영하는 태산(마동석 분)과 원승(서인국) 등 천사들이 돈을 수금하는 장면은 '마동석 표' 유머와 화려한 액션으로 극 초반 재미를 더했다.

또 알 수 없는 이유로 다른 천사들과 떨어져 지내는 미르(이주빈)가 소개되며, 그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궁금증을 안겼다.

극 후반 악의 추종자들로 인해 수천 년 만에 봉인에서 깨어난 오귀(박형식)의 등장도 긴장감을 높였다.

이 드라마는 마동석이 직접 기획 과정부터 참여해 주목받았다. 그는 제작발표회에서 "오래전부터 동양적 색깔이 담긴 히어로물을 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튼튼한 미래,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시작하세요.

Grace Kim 보험

★★★★★
메디케어 전문
★★★★★



- ✓ 신뢰와 경험의 전문가
- ✓ 쉽고 정확한 상담
- ✓ 최적의 플랜

생명보험
의료보험
(개인/직장)

장기요양 보험
(Long Term Care)

메디케어

평생연금
(Annuity)

IRA, 401K,
Simple IRA



Grace Kim

978.800.3467

✉ grace.kim@ebshealth.us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25) 주식투자 조언의 함정

“유망한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 몇 배, 몇십 배로 불어난다.”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 회사에 투자하면 성공한다.” “주가가 저렴한 한국 기업에 투자하라.”

이처럼 그럴듯하게 들리는 조언을 내놓는 투자 전문가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대부분 근거 없는 희망에 불과하며,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펠로톤(Peloton)이다. 팬데믹 동안 홈트레이닝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펠로톤의 시가총액은 한때 500억 달러까지 치솟았다. 당시 CEO는 15년 안에 1조 달러 기업이 될 거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팬데믹이 진정되자 수요가 급감했고, 현재 주가는 최고점 대비 95% 폭락했다.

이 사례는 기업 내부 경영진조차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경영 전략, 경쟁사 동향, 재무제표 등

방대한 정보를 쥐고 있어도 방향을 맞히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경영진이 치명적인 문제를 외부에 솔직히 털어놓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단순히 기업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유망한 기업을 고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이 자주 쓰는 “저평가”라는 표현도 조심해야 한다. 주가수익비율(PER)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저평가된 것은 아니다. 산업 특성, 성장 가능성, 시장 환경 등 복합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국 ‘저평가’는 주관적인 해석일 뿐 투자 근거가 될 수 없다.

기업 컨설턴트 마이클 모부신(Michael Mauboussin)은 『More Than You Know』에서 클록스피드(Clockspeed) 개념을 소개하며 산업 변화 속도가 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기술 변화가 빠른 산업에서는 기업 수명, 전략, 가치 평가

방식이 순식간에 바뀌어 전통적인 평가방식이 무용지물이 된다.

과거 포천 500대 기업의 평균 생존 기간은 75년이었지만, 현재는 15년으로 줄었다. 테슬라, 메타(페이스북), 우버 같은 신생 혁신 기업은 과거의 코카콜라나 GE와 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 산업 변화가 가속화될수록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진다.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회사의 동업자가 되는 것이며, 경영자의 철학을 이해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다. 하지만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조차 서로의 속마음을 모두 알 수 없다. 하물며 일반 투자자가 경영자의 진정성이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경영자의 인터뷰, 주주서한 등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지만, 겉으로 드러난 정보만으로 자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설령 어느 정도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전문가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거나 지인의 소개로 특정 기업을 골라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런 선택은 도박장에서 베팅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투자하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투자는 단기 대박을 노리는 행위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개인이나 가족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장밋빛 전망에 기대어 특정 종목에 쏟아붓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다.

막연한 기대나 감정이 아닌, 분산투자과 같은 검증된 투자 원칙을 기반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정한 투자는 현실을 직시하고,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계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디지털 신문을 받아 보는 방법

보스톤코리아 디지털 신문은 종이 신문 번갈아 매 격주로 발간됩니다. 보스톤 코리아 디지털 신문은 매주 금요일 2만명의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고 있으며, 평균 5천명이 넘는 독자들이 이메일을 열어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문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첫째, 보스톤코리아닷컴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editor@bostonkorea.com에 <보스톤코리아 구독>이란 제목으로 이메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매 격주 PDF 지면으로 이메일을 통해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신청 방법

1. 보스톤코리아 닷컴에 회원가입을 신청해주세요.
2. editor@bostonkorea.com에 <보스톤코리아 구독>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감독은 음식, 배우는 맛 표현에 진심...맛깔나는 '폭군의 셰프'

(서울=연합뉴스) 고기혜 기자 = 2025년 대한민국에서 조선시대로 타임슬립(시간여행)한 주인공, 얼핏 보면 뻔해 보이는 설정이다.

하지만 '폭군의 셰프'는 '요리'에 승부를 걸었다. 감독은 디테일한 '음식 연출'에 진심이었고, 배우들은 '맛 표현'에 공을 들였다.

지난 23일 첫 방송한 tvN 새 토일 드라마 '폭군의 셰프'는 폭군이자 절대 미각을 가진 왕인 연희군 이현(이채민 분)과 미래에서 온 셰프 연지영(임윤아)이 시공간을 초월해 요리를 매개로 가까워지는 과정을 그린 퓨전 사극이다.

지난주 방송된 1~2화는 지영과 이현의 첫 만남, 그리고 지영이 이현을 따라 궁으로 가 가까워지는 이야기가 그려졌다.

지영은 프랑스 요리 대회에서 우승해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헤드셰프가 될 기회를 얻지만, 한국행 비행기에서 미지의 힘에 이끌려 과거로 회귀한다.

낮선 숲에서 정신을 차린 그는 근처에서 사냥하던 조선 최악의 폭군 이현과 마주치고, 이현을 노린 자객의 공격에 둘은 함께 죽을 고비를 넘긴다.

이현은 지영의 이상한 행색에 한 번, 그의 요리에 두 번 놀란다. 지영이 타임슬립 직전

챙겨 온 고추장과 버터로 만들어 준 비빔밥은 수라상을 받는 왕도 생전 처음 느껴보는 맛이였다.

지영이 채홍(궁궐에 여인을 뽑아들이는 일)을 피하기 위해 왕의 오른팔이자 채홍사(채홍 업무를 맡은 관리)인 임송재(오의식) 부자의 접대 음식을 마련했을 때도 이현은 또 한 번 그의 음식을 맛보게 된다.

'수비드'라는 양식기법으로 조리된 지영의 스테이크에 눈이 번쩍 뜨인 이현은 '천하 일미'라는 극찬과 함께 지영을 궁에 데려가기로 결심한다.

총 12부작 중 공개된 회차는 두 편뿐이지만, 2회만으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드라마의 모든 스토리가 '요리'를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이전에도 '요리'를 주제로 한 사극 드라마는 종종 있었다. 지난 2003년 방송된 MBC 드라마 '대장금'은 어린 수라간 나인이 뛰어난 미각을 활용해 궁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일대기를 그렸고, 2020년 방영된 tvN '철인왕후'는 조선 왕후의 몸에 빙의된 남자 주인공이 궁내 세력을 포섭하는 등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요리를 도구로 활용했다.

여기에 '폭군의 셰프'는 서바이벌과 로맨스라는 키워드를 추가했다. 폭군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매번 요리에 목숨을 걸고, 오



직 요리를 매개로 두 주인공이 서사를 쌓아 간다는 설정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음식을 주인공처럼 등장시키고 싶었다"던 장태유 감독의 의도대로 음식의 비주얼을 극대화한 디테일한 연출은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묘미다.

식재료를 다듬는 지영의 손을 화면에 꽂찰 만큼 확대해 시청자들이 요리 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달걀과 소고기 등 식재료를 솥에 넣을 땐 카메라가 물속에서 이를 찍는 듯한 독특한 촬영기법을 사용했다.

또 생소한 요리 기법은 내레이션과 자막으로 충실히 설명하고, 완성된 음식의 '인서트'(중요한 이미지를 확대해 장면 사이에 끼워 넣는 것) 촬영에도 상당한 공을 들였다.

극중 인물들이 음식을 입에 넣는 순간 함께 따라오는 만화적 시각 효과도 극의 재미를 더한다.

지영의 음식을 맛본 임송재 부자, 그리고 이현의 황홀한 표정 뒤로 새우, 표고버섯, 멸치 등 식재료가 날아다니거나, 폭죽이 터지는 장면 등은 유쾌한 웃음을 자아낸다.

8월 31일 - 9월 6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새처럼

- 운수: 그 어느 때보다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기회라 생각되면 꼭 잡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 금전: 거두어들이는 수확의 시기입니다. 풍성한 가을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새처럼 보는 것만으로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 애정: 혼자 끄덕대면서 고민하지 말고 대화를 나누어주세요. 함께 의논수록 좋은 방법이 생길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3, 5일 길일. 1, 2일 주의.

소띠 | 지출을 신경 써서

- 운수: 정작 중요한 것은 놔두고 엉뚱하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 금전: 들어오는 것이 있지만 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지출을 신경 써서 하지 않으면 남는 것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 애정: 연인이나 부부간에 성격 차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겠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 4일 길일. 2, 5일 주의.

범띠 | 일을 분담해야

- 운수: 혼자서 다 하려고 하다가는 자신의 몸만 축이 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거나 분담하도록 하세요. ● 금전: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들쭉날쭉합니다. 많이 들어올 때 잘 챙겨두어야 하겠습니다. ● 애정: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믿어주고 어디까지 의심해야 하는지 아직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 6일 길일. 31, 3일 주의.

토끼띠 | 두루두루 잘 살피면서

- 운수: 세상살이가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루두루 주변을 잘 살피면서 가야 하겠습니다. ● 금전: 당장 내 손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훗날에 얻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 애정: 상대가 원하는 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정말 상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 3일 길일. 1, 4일 주의.

용띠 | 해결책을 찾고

- 운수: 여러 날 고민하게 하던 일이 드디어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한숨 돌리게 되니 시간적으로나 심적으로 여유가 생깁니다. ● 금전: 투자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왔습니다. 매매나 문서로 인한 이익을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 애정: 진정으로 사랑할만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가까이 있어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4, 6일 길일. 2, 5일 주의.

뱀띠 | 큰 것을 챙기도록

- 운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을 두고 보기 힘들어서 고심하지 마세요.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니 결단해야 합니다. ● 금전: 적은 돈을 아끼려다가 큰돈을 쓰게 되는 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적은 것은 내어주고 큰 것을 챙기도록 하세요. ● 애정: 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금방 탄로 날 수 있습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1, 5일 길일. 3, 6일 주의.

말띠 | 이리저리 계산하게

- 운수: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표정을 하지 마세요. 안 좋은 인상을 주거나 나쁜 영향을 줄 뿐입니다. ● 금전: 돈 문제로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출해야 하니 이리저리 계산하게 됩니다. ● 애정: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처음에 들었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거나 점점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2, 6일 길일. 1, 4일 주의.

양띠 | 기쁨을 주는

- 운수: 음식에서 양지로 나간 것 같이 갑자기 자신의 주변이 환해집니다. 유익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귀담아들어야 하겠습니다. ● 금전: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중요한 일은 지금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로 인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때입니다. ● 애정: 마음이 통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3, 6일 길일. 2, 5일 주의.

원숭이띠 | 일생일대의 기회가

- 운수: 같이 일하지는 제의가 들어옵니다. 잘만 잡으면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금전: 수입이 증가하니 얼굴에 활색이 돌 것입니다. 노력한 것만큼 얻는 것이 있으니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 애정: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주겠지 바라지 말고 먼저 주고자 하는 마음을 내면 더 큰 것을 받게 됩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1, 4일 길일. 3, 6일 주의.

닭띠 |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 운수: 남이 나를 믿어주길 바라기 전에 우선 스스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서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아야 합니다. ● 금전: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곧바로 실행에 옮기세요. 남보다 얼마나 발 빠르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얻는 것이 크게 다를 것입니다. ● 애정: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 5일 길일. 4, 6일 주의.

개띠 | 충분히 만회할 기회가

- 운수: 다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충분히 만회할 기회가 곧 올 것입니다. ● 금전: 투자나 매매는 보류해야 합니다. 한편 두푼 모으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 애정: 진실을 알고 나면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모르고 넘어갔으면 모를까 이것저것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 6일 길일. 4, 5일 주의.

돼지띠 | 말수를 줄여야

- 운수: 접촉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금전: 어느 쪽으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수익과 직결되는 것이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애정: 말수를 줄여야 합니다. 한 사람이 한마디를 하면 다른 사람은 열 마디를 하니 자라니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4, 5일 길일. 31, 6일 주의.



"아무도 예상 못한 케데헌 성공... 대중문화 시대정신 사로잡아"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K-POP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넷플릭스를 넘어 미국 빌보드, 할리우드까지 점령한 가운데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케데헌을 대중문화의 시대 정신을 사로잡은 콘텐츠로 평가하고 성공 요인을 26일(현지시간) 분석했다.

3명의 여성 아이돌 그룹 헌트릭스가 악령을 물리치는 이야기를 담은 케데헌은 이날 누적 시청 수 2억3천600만명으로 넷플릭스 영화 부분 시청 역대 1위에 등극했다.

아울러 케데헌 오리지널사운드트랙 '골든'(Golden)은 이날 빌보드 '핫100'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지난 23~24일에는 정식 개봉이 아닌 '싱어롱'(sing-along) 스페

셜 이벤트 형식의 상영에도 불구하고 북미 박스오피스 1위를 거머쥐었다.

케데헌이 지난 6월 20일 공개돼 약 두 달이나 지난 콘텐츠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처럼 꾸준한 인기는 기이한 현상이다.

실제 넷플릭스의 대부분의 히트작은 공개 첫 주 이후 시청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데 반해 케데헌은 9주 연속 매주 넷플릭스 시청 수 2천500만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WSJ는 "넷플릭스의 이전 시청 수 1위 작품인 '레드 노티스' 같은 작품도 공개 몇 주 만에 사라진다"며 "올여름 할리우드의 화두 중 하나는 케데헌 성공에 대한 이야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분노의 질주와 같은 장수 시리즈가 인기를 잃고 영화 제작사들이 마인크

래프트와 같은 게임 각색에 사로잡힌 사이에 나온 케데헌은 할리우드 최초의 완전히 독창적인 프랜차이즈 영화"라고 극찬했다.

WSJ는 케데헌의 장수 인기 비결로 독창성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어 시청 대상을 폭넓게 확장할 수 있고 반복 시청도 많다는 점을 꼽았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대니얼 산체스 가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틱톡에서 케데헌 영상을 보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8살 딸에게 애니메이션 영화를 접하게 할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케데헌을 함께 시청했다.

이후 산체스의 딸은 일주일에 한번 이상 케데헌을 시청 중이다. 산체스 가족의 차안에서는 케데헌의 사운드트랙이 반복 재생

되고 있다.

케데헌을 제작한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 부문 사장 크리스틴 벨슨 조차도 "(케데헌의 인기가) 언제 멈출지 정말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다.

넷플릭스와 소니 픽처스는 케데헌 열풍을 이어가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 두 기업은 후속편 제작을 논의 중이다.

아울러 넷플릭스는 실사판 제작도 고려 중이며 할리우드를 앞두고 케데헌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싶은 사업자들의 연락도 끊임 없이 받고 있다.

WSJ는 유통 업계가 케데헌 관련 상품을 매장에 내놓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라며 겨울왕국 열풍 수준의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아이브, 새 앨범 '아이브 시크릿'... "감정 흐름에 집중"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걸 그룹 아이브가 25일 네 번째 미니앨범 '아이브 시크릿'(IVE SECRET)을 발표한다고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스타쉽은 "'아이브 시크릿'은 화려한 표정 뒤 숨겨진 감정의 흐름에 집중된 앨범"이라며 "아이브는 당당한 이미지면서도 그 안에 감춰진 반전의 태도를 꺼내 보였다"고 소개했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XOXZ'를 비롯해 '와일드 버드'(Wild Bird), '디어, 마이 필링스'(Dear, My Feelings), '갓차'(GOTCHA), '삐빅', '미

드나이트 키스'(Midnight Kiss) 등 6곡이 담겼다.

'XOXZ'는 '사랑해 잘자, 그리고 꿈속에서 만나'라는 뜻을 지닌 아이브의 신조어다. 묵직한 808 베이스와 브라스 사운드, 단단한 드럼이 곡의 긴장감을 이끌고, 저음의 랩과 단순한 보컬이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멤버 장원영이 서지음 작사와 함께 노랫말을 썼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에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낸 비밀의 꿈속으로 나를 초대하는 이야기가 담겼다.

tsl@yna.co.kr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91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두나미스 미국50주 선포외침전도미션 출판감사예배"에 참석하고...

지난 8월 25일(월) 오클랜드 가든 소재 “하크네시아교회(전광성 목사 시무)”에서 <한미 두나미스 예수교장로회 총회> 주관: 유나이티드 두나미스 신학대학교 <학교 관계자 직원 및 운영위 행정 조직> 총장: 최영식 박사, 행정총장 및 학장: 김희복 박사, 명예총장: 피종진 박사, 글로벌총장: 고석희 박사, 해외총장: 최요한 박사, 월드 전도총장: 김기남 박사, 재단이사장: 최영식 목사, 법인 대표 이사장: 김희복 목사, 교목: 배영숙 목사(NY), 교목(NJ) <전도팀 임원조직> 주최: 전도단장 김희복 목사, 부단장: 배영숙 목사, 총무: 송영희 목사, 협동총무: 우정하 목사, 황숙희 강도사, 두나미스 기자: 신영선 교사

20여 년간 맨하탄의 거리를 한결같이 한여름 피약별의 무더위와 혹한의 한겨울 속에서도 쉬지 않고 단장인 김희복 목사와 전도팀들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영혼구원!’에 대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 미국50주를 한차례 돌고 거의 두차례를 마무리를 지을 때쯤 그 여정을 한땀 한땀 바늘땀 꿰듯 그렇게 모아 엮은 책이 바로 <두나미스 미국50주 선포

외침전도미션>인 것이다. 그동안 전도 여정 중 운전을 맡았던 김희복 목사, 전병렬 목사, 배재상 안수집사의 그 노고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전도팀 부단장 배영숙 목사의 사회와 이광선 전도사의 반주로 1부 예배가 시작되었다. 뉴욕주찬양교회(배재상 안수집사 외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이 있었으며, 사회자의 묵도와 다함께 찬송을 불렀다. 교수 김경열 목사의 대표기도가 있었고, 남태성 선교사의 성경봉독(롬 1:16)이 있었으며, 이어서 뉴욕장로성가단(단장 송운섭 장로)의 특송 “하늘의 곡조 울리니” 가 있었다.

두나미스 졸업생들(최정애 강도사, 박정원 목사, 신영선 교사) 미국50주 전도 및 뉴욕 맨하탄 전도와 한국 10도(서울, 제주도 포함) 전도 간증이 있었다. 최정애 강도사의 간증에는 “복음은 내가 사는 길, 전도는 남을 살리는 길”이라는 귀한 나눔으로 감동을 주었다. 또한 박정원 목사는 내성적인 성격에 외침전도에 자신이 없었지만, 미국50주 전도를 참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전도하게 되었다고 한다. 신영선 교사는 맨하탄 전도를 나가며 세상나이 90이 되신

권사님을 뵈면서 전도의 영혼구원의 확신과 열정을 더욱 든든히 세울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복음 선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종식 목사(베이사이드장로교회)의 말씀 선포가 있었다. 이번 출간된 책은 복음을 전하는 부분이 많이 담겨있으며 다음에 책을 출간하게 된다면 선포했던 복음으로 열매맺은 이들의 글이 모아지면 더욱 좋겠다는 말씀도 나왔다. 또한 이종식 목사는 요나의 이야기를 나누며 복음의 능력에 대해 한층 강조했다.

이어서 두나미스 신학생인 이광선 전도사의 특별송이 있었으며, 총동문회 회장 문종희 목사의 인도로 미국, 한국, 북한, 이스라엘 및 온 세계 전도자들의 전도와 온 세계 선교사님들의 선교를 위하여! 합심기도가 있

었다. 뉴욕크로마하프 연주단(회장 이진아 목사)의 “주의 길을 가리라” 헌금송이 있었으며, 김정길 목사(뉴욕엘피스장로교회)의 헌금기도가 이어졌다. 그리고 협동총무 우정하 목사의 광고가 있었고 다같이 찬송을 부르고 안창의 목사(증경회장)의 축도로 1부 순서가 마무리되었다.

2부 순서에는 김희복 목사가 사회를 맡았다면 박준열 목사(뉴욕선한목자교회)의 기도과 미국50주 및 맨하탄선포외침전도팀(총무 송영희 목사) 및 에어로폰 연주(지도 구영희 권사)가 있었다. 고석희 목사(두나미스 신학 글로벌 총장)와 김영호 목사(교수, 아카데미 대표)의 서평이 있었으며, 한준희 목사(뉴욕목사회 회장), 이준성 목사(뉴욕교역자연합회 회장), 신현택 목사(증경회장), 이만호 목사(증경회장), 윤오성 목사(교수)가 축사가 있었다. 전희수 목사(기쁨과 영광교회), 임영건 목사(뉴욕주안예교회), 하정민 목사(미주여성목회자협의회 회장), 민제기 선교사(MJMC 리더), 손대성 장로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최윤섭 목사(뉴욕그리스도교회)의 마침기도 및 식사기도가 이어졌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양약고구良藥苦口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양약良藥이란 말이 있다. 몸에 좋은 약이라는 뜻이다. 한약韓藥이 아닌 양약洋藥이라 할 수도 있는데, 헛갈릴 수도 있겠다. 이어지는 사자성어이다. 양약고구良藥苦口. 몸에 좋은 약인데, 먹기에는 입에 쓰다는 말일게다. 입에 단것은 과히 몸에 좋지않다. 설탕이 그러하다.

일반음료인 콜라는 약으로 먼저 개발되었다. 소화기능 개선과 각성 효과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

이다. 그런데 설탕이 듬뿍 든 콜라는 입에 무척 달다. 그럴 적에 설탕을 빼면, 콜라는 입에 달지않아 오히려 쓸것이다. 양약고구라 했으니, 쓴 콜라는 좋은 약일수도 있긴 하겠다.

나태주 시인이다. 세상에 좋은 약이라 했다.

세상은 아직도 (징글징글하도록) 좋은 곳이란단. 아버지 말씀이 약이 되었다.

... 말씀이 더욱좋은 약이었다. (나태주, "좋은 약" 중에서)

한국신문에서 읽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에 관한 기사이다. 대통령의 주치의가 밝혔다고 했다. 대통령은 현재 햇빛 노출로 인한 피부 손상이 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다고 한다. 이런걸 밝혀도 되는가 그건 모르겠다. 국가 일급비밀이 아니던가?

트럼프 대통령이 코카콜라의

완전팬이라 한다. 콜라뿐아닌데, 아예 햄버거를 함께 즐긴다는 거다. 감자튀김인 프렌치프라이도 좋아 할것임에 틀림 없다. 햄버거는 콜라와 케 을 찍은 감자튀김과 같이 먹어야 하기 때문일 게다.

케첩안에 들어있는 설탕은 어찌되는가. 한잔의 콜라 역시 설탕이 듬뿍들어 있다 했는데, 그걸 즐겨 마시는 트럼프 대통령은 콜레스테롤 위험으로 부터 안전한가?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 코카콜라는 사탕수수로 만들어라. 대통령덕에 코카콜라는 대박을 쳤다. 강한 대통령이 강한맛의 코카콜라를 연일 띄우는가 싶어 하는 말이다.

좋은 약은 언제나 강하고 입에 쓴 약일까. 강한 약이 진정 좋은 약이 될수 있을까 말이다.

이것이네 몸에 양약이 되어 (잠언 3장 8절)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휴람 의료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사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휴람은 상담 - 예약 - 검진진행 - 사후관리를 보호자 역할로서 도와드립니다.'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1. 이학적검사(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 7. 체지방검사 |
| 2. 청력검사(순음청력검사) | 8. 부인과검사(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
| 3. 혈액검사(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 9. 소화기검사(수면 위내시경) |
| 4. 암표지자검사 | 10. 복부초음파검사(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
| 5. 심폐기능검사(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6. 요검사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오전 4시간 **49만원 ~**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69만원 ~**

- 휴람 당일종합검진 + 수면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120만원 ~**

- 휴람 숙박종합검진 + 뇌MRA, 심장CT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240만원 ~**

-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 뇌MRI, 심장초음파, 복부조영CT, 흉부(폐)CT
갑상선초음파, 경동맥초음파 +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2일간 진행(오전 검사 시행) **437만원 ~**

- 휴람 VIP종합검진 + PET-CT(전신암정밀검사), 복부비만CT, 관상동맥CT
뇌심장정밀혈액검사 + 2일간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휴람 의료 네트워크 병원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 | |
|--------------|-------------|
|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 세란병원(독립문역) | 안산한도병원(선부역) |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해외동포 특별가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a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돌연사 90% 원인 '부정맥'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20~30대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돌연사의 원인인 부정맥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심장내과 최규영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심장 질환은 국내 사망 원인 중 암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단일 장기 질환 중에서는 사망률 1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으로도 주요 사망 원인 1~2위를 다투는 중대한 질환이다. 과거에는 주로 노년층에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30대 이하 젊은 층에서도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심장 질환 중 부정맥은 돌연사의 주요 원인으로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부정맥 환자 수는 2018년 37만 822명에서 2022년 46만 3,53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환자 수는 80세 이상이 많지만, 10~20대 젊은 층 증가세도 뚜렷하다. 2018년 대비 2022년 환자 증가율이 10대(10~19세)는 33.5%, 20대(20~29세)는 32.3%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심장은 전기 신호로 박동하며, 정상 성인의 심박수는 분당 60~100회 정도다. 하지만 이 전기 신호 체계에 이상이 생기면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거나 느리게, 혹은 불규칙하게 뛰게 되는데 이를 '부정맥'이라 한다. 부정맥은 서맥, 빈맥, 세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맥은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느리게 뛰는 것으로, 어지러움·무력감·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빈맥은 심장이 분당 100회 이상 빠르게 뛰는 상태로, 두근거림·흉통·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세동은 뇌졸중이나 심부전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부정맥으로, 혈전이 형성돼 뇌경색 등 합병증 위험도 높다. 부정맥의 원인은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 판막 질환뿐만 아니라, 선천성 심장 기형, 유전, 갑상선 기능 항진증, 비만, 수면무호흡증, 과음 등 매우 다양하다. 문제는 부정맥이 간헐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자각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쉽게 간과하기 쉽다는 점이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등 기저 질환이 있거나 심장병 가족력이 있는 65세 이상 고위험군은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인 심전도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부정맥은 기본적으로 심전도(ECG) 검사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루 동안 환자의 심장 리듬을 측정하는 24시간 홀터 모니터 검사가 효과적이다. 이 외에도 심장 초음파, 운동부하심전도, 기립경사검사, 전기생리학 검사 등 다양한 진단 방법이 활용된다. 치료는 부정맥의 종류와 중증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약물치료부터 시행한다. 약물치료가 효과가 없거나 빈맥 등 특정 부정맥의 경우에는 전극도자절제술이 적용된다. 이는 문제 부위를 찾아 70~100도의 고주파 열로 태워 제거하는 치료법으로, 완치 가능성도 높다. 또한 냉각풍선도자절제술은 발작성 심방세동의 원인이 되는 전기 신호 차단을 위해 폐정맥에 특수 풍선을 밀착시킨 후 급격히 냉각시켜 치료한다. 심장 박동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인공심박조율기, 심실 빈맥이나 심실 세동으로 인한 급사를 막기 위한 삽입형 제세동기도 치료에 사용된다. 부정맥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한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가족력이 있거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자각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심전도 검사를 받아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야 한다. 또한 고혈압, 당뇨 등 동반 질환이 있다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정맥은 술, 담배,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하는 등 생활습관 개선으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 흉통이 지속되거나 이상 증상이 느껴진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돌연사 90% 원인 '부정맥'"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돌연사의 원인 부정맥

부정맥이란?
-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이거나 너무 빠르거나 느린 경우

부정맥의 종류

	서맥	빈맥	세동
심장박동	너무 느림	빠르고 규칙적	빠르고 불규칙
증상	어지러움, 무력감, 실신	두근거림, 호흡 곤란, 흉통, 가슴 답답함	뇌졸중, 심부전, 혈전 만들어 뇌경색 같은 합병증

부정맥 원인
-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판막 질환, 심부전, 노화, 유전, 선천성, 갑상선 항진증, 비만, 수면 무호흡, 과음

자료제공 :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세무법인

호연

호연회계법인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치과** 서비스 **휴람** 을 이용해보세요!



나이를면서 잇몸질환으로 고민이 많으시죠?
치과의 퀄리티는 당연히 한국 치과입니다.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치료기간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신 치과치료...
지금 상담을 통해 치료견적 확인 후 한국에서의 치과치료 준비해보세요!!!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 치과 이벤트

- 1 임플란트 오스템 [99만원~]
- 2 임플란트 외산 [165만원~]
- 3 스케일링+구강검진+치아X-RAY [5만원~]
- 4 라미네이트 [40만원~]
- 5 미백 [30만원~]
- 6 전체틀니 [180만원~]
- 7 크라운 [40만원~]
- 8 충치치료 [국내수가]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치아 X-RAY 사진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 상기 치료는 병원에 따라 치료항목에 따른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치과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미소랑치과(양재역, 발산역, 서울대역, 셋강역)
옥스치과(강남역)
스카이뷰치과(신논현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 내과 / 비만 전문의 이용현

Charles River Medical Associates - Obesity Clinic
61 Lincoln Street, Suite 301, Framingham, MA 01702
508-820-8332

살 빼려다가 머리카락이 빠졌다? 유명 비만약의 충격적인 부작용!

GLP-1 계열 약물(웨고비, 켈바운드)을 시작한 뒤 머리카락 빠짐을 경험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에서도 웨고비 약 3-6%, 켈바운드 약 5-8% 사용자에게서 탈모가 보고됐는데, 원인 감별부터 필요한 검사, 치료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약 때문일까? 많은 분들이 겪는 고민

“체중은 잘 빠지는데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요.”

빠른 체중 감량 자체가 머리카락 성장 주기에 영향을 주어 휴지기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효과만을 탓하기 전에 영양 결핍, 갑상선 문제, 호르몬 변화 등 다른 원인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 필요한 검사: 우선순위 검사부터

Obesity Medicine Association에서는 GLP-1 계열 약물을 복용

중 탈모가 발생한 환자에서 다음 항목을 우선적으로 검사할 것을 권장합니다.

철분 및 저장철 → Serum iron, Ferritin

비타민 D → 25(OH)D

아연 → Plasma zinc

갑상선 기능 → TSH

급격한 체중 변화는 특히 철분, 아연, 비타민 D 결핍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2차 검사: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만약 위의 1차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인데도 탈모가 계속된다면, 증상에 따라 선택적으로 다음 항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 비타민 B7, 엽산
셀레늄(Selenium), 구리(Copper)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남성호르몬 프로필
프로락틴(Prolactin)

코르티솔(Cortisol)

중요: 2차 검사는 무조건 모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증상, 병력,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합니다.

4. 모든 검사가 정상이면?

모든 원인을 평가했음에도 탈모가 지속된다면, 치료적 접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녹시딜 (Minoxidil)

최근에는 저용량 경구 미녹시딜도 활용 증가

피나스테리드 · 두타스테리드 (Finasteride/Dutasteride)

남성형 탈모에서 더 효과적

스피로노락톤 (Spironolactone)

여성형 탈모에서 유용한 항안드로겐제

보조 치료
PRP(자가혈소판 주사), 저출력 레이저 치료, 메조테라피 등

5. 마무리 조언

웨고비 · 켈바운드 복용 중 탈모가 발생하더라도 원인이 다양



하기 때문에 약물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영양 상태, 호르몬, 대사 변화 등 다각도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를 통해 원

인을 명확히 하고 필요할 경우 맞춤형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신문을 독자여러분 집으로 배달해드립니다!

클릭만 하시면 바로 신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는 디지털 신문 이메일을 여러분 집에 격주로 배달해드립니다. 집에서 데스크탑으로, 태블릿으로 또는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에 신문 전 페이지를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기사를 원하시면 바로 클릭만 하시면 PDF 지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크게 보고 싶으시면 위의 + 버튼을 눌러 주세요. 줄이고 싶으시면 - 버튼을 눌러주세요.



뉴잉글랜드 교회협의회 | 가을부흥집회

교회여, 일어나라!

2025. 09. 05 (금) - 07(주일)

성요한교회
2600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1



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담임목사
UCIC 기독교 이사장
OM KAM 이사장
쥬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
미주 대표

5 금

교회여, 다음 세대를 부흥케 하자!

(룻 1:1-6) | 저녁 7:30

6 토

교회여, 끊임없이 변화하자!

(마 9:14-17) | 저녁 7:30

7 주일

교회여, 부르심 앞에 서자!

(행 2:42-47) | 저녁 6:30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 나사렛사랑교회 · 내슈아현마음교회 · 뉴햄프셔감리교회 · 뉴햄프셔현인교회 · 로드아일랜드감리교회 · 로드아일랜드재일현인교회 · 로드아일랜드중앙현인교회 · 라이코스교회 · 무지개연합감리교회 · 밀알교회 · 보스톤감리교회 · 보스톤은혜장로교회 · 보스톤장로교회 · 보스톤소이폴교회 · 보스톤늘푸른교회 · 디딤돌교회 · 보스톤서부장로교회 · 보스톤성경교회 · 보스톤한울교회 · 보스톤시온성교회 · 보스톤세일교회 · 보스톤주님의교회 · 보스톤중앙교회 · 보스톤필그림교회 · 보스톤한인교회 · 보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 · 북부보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 · 비전교회 · 새빛교회 · 생명복린교회 · 성요한연합감리교회 · 순복음보스톤교회 ·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 · 실로암교회 · 인디옥연합감리교회 · 임마누엘교회 · 임방교회 · 우스터장로교회 ·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 워싱턴프린티어교회 · 은혜진리교회 · 임마누엘연합교회 · 좋은감리교회 · 지구촌방주교회 ·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 케임브리지현인교회 · 켄지영생장로교회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BostonKorea.com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주세요.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데스크탑에 북마크로 저장해 주세요

보스톤코리아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